

체코 공화국 소수 민족의 언어 정책

— 집시·로마니족을 중심으로

김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명예교수

1. 서론

유럽의 십자로에 위치하면서 유럽의 심장, 중부 유럽의 선진 공업국으로 불리는 체코 공화국은 국토가 남한보다도 작은 나라다. 인구가 약 1,000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를 포함하여 슬라브 여러 나라 중 가장 일찍 슬라브 문자(文字)를 사용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 9세기 중엽부터 지금까지 유럽 문화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공헌해 왔다. 14세기 체코 왕 카렐(Karel)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카렐 4세)로 선출되면서 체코의 고대 시기인 중세 문화는 융성기를 맞이한다. 카렐 4세는 중부·동부 유럽에서 최초로 1348년에 프라하에 카렐대학교(Charles University)를 세웠다. 그리하여 프라하는 당시 독일과 슬라브권의 학문적 중심지가 된다. 이때부터 프라하에 고딕과 바로크 양식 건축물이 세워졌고 후일 괴테에 의해 ‘황금의 도시’로 칭송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릴케, 카프카와 막스 브로트의 도시이기도 하다.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야나체크 등의 음악, 알폰스 무하의 아르누보 양식의 그림, 코메니우스의 교육학과 신학, 얀 후스의 종교개혁, T.G.

마사리크의 민주주의 정치사상, 카렐 차페크의 철학 소설 및 공상 과학 희곡, 1980년대 한국 및 세계 문단을 휩쓴 밀란 쿤데라의 실험 소설, 그 외 고도의 기계 산업, 유기화학 공업, 맥주 산업, 인간 기관차라 불린 마라토너 자토펜크, 훌륭한 테니스 선수 나브라틸로바 등 체코인들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 낸 업적은 세계사에서 주목할 만하다.

1989년 말 동유럽 제국(諸國)의 자유화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무너뜨린 ‘벨벳혁명’을 이룩하며 가장 모범을 보인 체코슬로바키아는 1990년 3월 한국과도 국교를 맺고 문화, 경제 등 활발한 교류를 해 우리나라에도 친근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 체코는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로서 금단과 미지의 나라가 아니다. 체코는 우리와 대등한 국제 관계를 맺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각종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그런 나라이다. 1988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체코어과가 창설되어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체코어가 미국, 유럽 여러 나라와 한국에서도 교습되고 있다는 사실은 체코어가 문명 국가의 언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체코어는 인도·유럽어의 큰 줄기인 슬라브 언어권에서도 서 슬라브어 중의 하나다. 슬라브어권은 서 슬라브어, 동 슬라브어, 남 슬라브어 등으로 구분된다. 서 슬라브어로는 체코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등이 있고, 동 슬라브어로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등이 있고, 남 슬라브어로는 불가리아어와 구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마케도니아어, 슬로베니아어 등이 있다. 인구 면에서 체코어는 체코 내에 1,000만여 명과 유럽 미주 등지의 수백 만 명만이 사용하는 세계 소수 민족어의 하나다. 특히 체코인들은 19~20세기 남북 미주 대륙으로 많이 이민을 갔고, 20세기 1, 2차 세계 대전이나 정치적 변동에 의해 형성된 국외 즉 루마니아, 세르비아, 헝가리와 폴

란드 등의 넓은 지역이나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체코어를 구사하는 체코인들이 살고 있다. 특히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으며, 현재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도 상당수의 체코인들이 살고 있다.¹⁾

유럽의 한 중앙에 위치하면서 동서로 길게 뻗은 체코는 서부의 보헤미아, 남부의 모라비아, 북동부의 실레지아로 구성되며, 그들은 모두 약간의 사투리가 있기는 하나 체코어를 사용한다.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1918~1992)은 다민족 국가였으나 이에 비해 1993년 분리 독립한 체코 공화국은 거의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001년도 인구조사 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체코 공화국 인구 약 1,050만 명 중 오직 9.9%만이 소수 민족으로 등록하였다. 여기에는 모라비아인과 실레지아인 39만 2,524명(전체 인구의 3.8%)이 포함된 숫자다. 여기에는 폴란드어, 독일어, 집시(로마니)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아랍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도 있다.

소수 민족의 대표자들은 총조사 준비에 적극 참여하였고, 정기적인 소수 민족어 잡지 출판 상황도 신고하는 등, 총조사를 하는 요원들에게 적극 동참하였다. 하지만 폴란드 소수 민족 대표자들은 정부와 미디어가 간행하는 잡지 《소수민족어》에서 공식적인 정보 부족을 비판하였다.

체코 공화국에서 사실 비체코인들 중 가장 많은 수는 앞서 언급한 모

1) 자세한 것은 J. 네크바필과 J. V. 네우스투프니, “체코 공화국의 언어정책”, 《언어계획의 현재쟁점》, Jiri Nekvapil & J. V. Neustupný, “Language Management in the Czech Republic” in *CURRENT ISSUES IN LANGUAGE PLANNING*, Vol.4, No.3 & 4, 2003, p. 184 참조.

라비아인과 실레지아인이다. 그들은 실제 소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언어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체코인에 가깝다. 이 모라비아인과 실레지아인의 소수 민족 정체성 문제는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 정권의 변혁기에 이 두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²⁾ 그러나 현재는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1991년 이래 소수 민족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 민족의 언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체코 정부도 소수 민족 보호 협정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소수 민족의 문화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에도 복합 문화 교육의 수단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체코 공화국은 1995년 소수 민족 보호 협정서에 서명하였고 1997년 승인하였다.³⁾

체코 공화국은 2000년도 지방 언어 및 소수 민족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에 서명하여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소수 민족을 위한 언어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체코 공화국 내에서 소수 언어 정책에 대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여건들 때문에 확실하게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2) 자세한 것은 카롤린 츠빌링, 2004, “체코 공화국에서 소수민족보호와 언어정책”, Carolin Zwillig, “Minority Protection and Language Policy in the Czech Republic” in <https://www.idmarch.org/document/%20/xsC> 참조

3) 소수민족 보호 협정서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논문 참조. K. 갈-제미에, “중부, 동부유럽에서 소수민족보호와 그 영향을 위한 구성협약”, K Gál - JEMIE, “Th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and Its Impact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http://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jemie2000&div=5&id=&page=>

2. 체코 공화국의 언어 정책

체코어는 19세기 초 민족주의 기운 속에서 부활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 독립하기까지 문어가 발달하여 왔고 체코 지식인들은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체코어는 현재 약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언어다. 체코어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체코 민족이 독립국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명맥을 유지해 온 문명화한 언어다. 유럽에서 아주 잘 발달된 공업 국가의 언어이다. 이 언어는 노동자부터 지식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고 교육과 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체코어는 이웃 나라 독일의 영향을 받아 왔지만 아주 독립적으로 발달한 언어다. 그렇다고 아주 강한 언어의 순수주의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우크라이나어가 러시아어에 크게 영향받고 있고 서로 달갑지 않은 관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체코어는 그런 면 없이 독립적이다.

체코에서 공식적으로 각 민족이 모국어로 교육받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소수 민족의 언어로 가르치는 특별 학교가 존재한다. 둘째, 체코어는 필수이고, 소수 민족어는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 민족어로 가르치는 특별반들이 있다.

체코 인구는 약 1,023만 60명 중 체코어 사용이 약 95~96%이고 나머지는 소수 민족어를 사용한다.⁴⁾ 체코 공화국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⁵⁾

4) 체코 통계청에 의하면 2001년도 체코 공화국의 인구는 10,230,060명이고 2012년 12월 31일의 통계는 10,516,125명이다.

5) 소수민족보호와 그 영향을 위한 구성협약 제25조 1절에 따라서 체코 공화국이 제출한

[표 1] 2001년도 체코 공화국 인구 통계표

민족	인구수(명)	비율(%)
전체 인구	10,230,060	100.0
체코인	9,249,777	90.4
모라비아인	380,474	3.7
실레지아인	10,878	0.1
슬로바키아인	193,190	1.9
폴란드인	51,968	0.5
독일인	39,106	0.4
집시인(로마니인)	11,746	0.1
헝가리인	14,672	0.1
우크라이나인	22,112	0.2
러시아인	12,369	0.1
루테니아인	1,106	0.0
불가리아인	4,363	0.0
루마니아인	1,238	0.0
그리스인	3,219	0.0
베트남인	17,462	0.2
알바니아인	690	0.0
크로아티아인	1,585	0.0
세르비아인	1,801	0.0
기타	39,477	0.4
불확정인	172,827	1.7

2001년도 인구조사 결과, Results of the 2001 census (situation on 1 March 2001), taken from the Second Report submitted by the Czech Republic pursuant to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2004), articles 136~141.

[표 2] 모국어 숫자(2001)

모국어	인구수(명)	비율(%)
체코어	9,707,397	94.9
슬로바키아어	208,723	2.0
집시어(로마니아어)	23,211	0.2
폴란드어	50,738	0.5
독일어	41,328	0.4
영어	3,791	0.0
러시아어	18,746	0.2
기타	99,258	1.0
불확실한어	76,868	0.7
합계	10,230,060	100.0

[표 3] 두 개 모국어(2001)

모국어	인구수	퍼센트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	14,109	0.1
체코어와 집시어(로마니아어)	12,970	0.1
체코어와 폴란드어	2,552	0.0
체코어와 독일어	11,061	0.1
체코어와 영어	733	0.0
체코어와 러시아어	670	0.0
체코어와 기타어	4,074	0.0
다른 조합	3,240	0.0
합계	49,409	0.5

체코 공화국의 시민들은 그들이 체코인이건 소수 민족이건 기본권과 자유권의 헌장⁶⁾에 따라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만일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의 경우, 통역자를 사용할 권한은 보장하지만 그 비용은 변제되지 않는다.

정부의 선전용 전단이나 다른 출판물은 소비자보호법(Act on Consumer Protection)에 따라 체코어로 출판해야 한다. 체코어에 관한 책임자와 표준어 편찬자는 체코 공화국 과학 아카데미 체코어 연구원이다.

체코 공화국에서 체코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슬로바키아어다.

헌법25조는 소수 민족어의 교육을 제공하고, 소수 민족 법은 중등학교를 통해 보육원 수준의 소수 민족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교육청소년체육부는 2001년 체코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소수 민족들로 구성된 소수 민족의 업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 그룹을 설립했다.

현재 주 교육 시스템에 의한 소수 민족 언어의 교육은 각 소재지에 일정 수의 사람이 있는 소수 민족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권리는 현재 폴란드의 아동들만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 소수 민족은 카르비나(Karvina)와 프리데크-미스테크(Frydek-Mistek) 지역의 폴란드인들에게 폴란드어만을 가르치는 유치원, 초

6) 자세한 것은 다음 글 참조: 아구스틴 호세 메넨데스, “유럽헌장 만들기: 유럽의 기본권헌장의 법정지위와 정책영향”, Agustín José Menéndez, “Chartering Europe: Legal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JC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ume 40, Issue 3, pages 471~490, September 2002.

등학교, 문법학교와 중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네트워크를 배치했다.

반면에 불가리아인, 크로아티아인, 루테니아인, 러시아인, 그리스인, 우크라이나인 소수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소수 민족들의 경우에는 어느 한곳에 집중해서 살고 있지 않고 체코 공화국 여기저기에 분산 거주하고 있어 민족어 학교를 설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폴란드, 독일 그리고 집시 소수 민족들의 교육을 지원하지만 다른 소수 민족들은 사교육 형태의 추가적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만 교육받을 수 있다. 독일 소수 민족의 대표자들은 독일 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인식한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독일 소수 민족 대표자들 중 일부가 독일어의 특수성을 유지하고자 이중 언어 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왔다.

2.1. 소수 민족 집시의 상황과 언어 정책

체코 공화국에서 언어 정책과 소수민족보호법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집시 문제다. 그러므로 체코의 언어 정책을 다룰 때 집시 소수 민족 문제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다. 집시(Gypsy, 집시 말로 로마니(Romani))는 체코 공화국에 사는 소수 민족이다. 그들은 언어, 생김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 특징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절대 다수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들은 똑같은 혈통이 아니지만 같은 민족 집단이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사투리, 전통적인 직업,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르다. 체코 공화국의 집시 인구 삼분의 일 정도는 대다수 국민들과 잘 어울려 살고 있다. 집시의 또 다른 삼분의 일은 주류 사회에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나머지 집시의 삼분의 일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떠돌이 생활을 유지한다. 이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간주되고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는 분파로 간주된다.

낮은 사회생활 수준, 낮은 취업률, 높은 범죄율이 집시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차별에 직면하고 스킨헤드 같은 극단적인 집단들의 인종차별주의에 자주 직면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체코 집시들은 유랑하지 않고 오랜 세기 동안 특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왔다. 이들은 2차 대전 기간 동안 나치에게 대부분 희생당하였다. 아주 적은 숫자의 체코 집시들과 독일계 집시들(Sinti)이 살아남았다. 전쟁 후와 공산주의 시대에 집시들은 대부분 슬로바키아에서 체코 땅으로 이주했다. 이 새로운 정착 정책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으나 공산주의 정부는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체코 땅에서 집시에 대한 인종 차별의 역사는 길다. 전쟁 기간에 가장 참혹한 인종 차별을 받았다. 나치 전쟁 동안 독일인들은 이렇게 분류하였다. “다른 하등 인종들은 집시들과 슬라브인들이다. 집시는 검은 모습에 지적으로 제한적이고 도적질과 살인의 경향을 타고 났다. 나치는 슬라브족을 보통 사람(Menschen, 멘셴)보다 덜 발달된 사람들(Untermenschen)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나치는 집시와 유대인을 살 가치가 없다(lebensunwert)고 불렀다. 2차 대전 중 50만여 명의 집시와 30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희생되었다.”⁷⁾

2.2. 집시 문화의 특징

전통적으로 집시들의 가장 보편적인 예술 형식은 음악, 춤, 수공예품

7) 오우르제드니크, 파트리크, 이십세기 간략사, Ouredník, Patrik, *A Brief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Dalkey Archive Press 2006, 103~104.

등 예술 분야이다. 오늘날 도시 아파트에 사는 집시들은 예술적인 생활에 능동적이지 않다. 전통적으로 집시들은 일상생활과 예술적 표현에서 매우 자발적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집시들의 아주 유별난 예술적 성공 이유 중 하나다. 음악, 춤 그리고 노래는 언제나 깊은 내적인 경험에서 유래한다.

집시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자. 집시를 지칭하는 새로운 명칭인 롬(Rom), 로마(Roma) 또는 집시(Romani, 로마니)는 1960년대에 하나의 소수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 1991년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롬’이란 단어는 체코어로 남성과 집시족, 집시 사람들이고 여성은 롬카(Romka)이다. 유럽에서 원래 ‘롬’이란 명칭은 1990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집시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어원적으로 ‘집시’는 힌두어 ‘돔바(Domba)’ 또는 ‘도마(Doma)’와 관련이 있다. 이는 인도의 카스트에서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인 파리아(Pariah)를 뜻한다.

체코 역사에서 집시에 대해 별시의 의미를 띠고 있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체코어는 ‘치간(Cigán)’ 또는 ‘치칸(Cikán)’ 여성은 치칸카(Cikánka)이며 영어로 ‘집시(Gypsy)’이다. 모든 떠돌이들과 유목민들을 지칭하는 ‘집시’는 오늘날 경멸적이라고 해서 체코나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영어로 Gypsies(집시), 프랑스어로 Gitanes(지타네) 또는 Tsiganes(치가네), 스페인어로 Gitanos(히타노스), 독일어로 Zigeuner(지고이너), 이탈리아어로 Zingari(징가리), 헝가리어로 Ciganyok(치가노크), 러시아어로 tsiganay(치가나이) 그리고 그리스어로 Gyftoi(지프토이)는 모두 이 전설에서 유래되었다.⁸⁾ 또는 9세기 콘스탄티노폴리스(현재

8) 다비도바, 에바, 세대차이: 20세기 1950~1980년대 전후 이민과 강제적인 병합으로 인한

터키의 이스탄불)로부터 유럽으로 온 떠돌이 음악인들과 예술가들을 ‘아치그나테스(Atsignates)’라고 불렀다. 이는 나중에 위에서 언급한 유럽의 여러 말로 불리게 되었다. 인도에서 유래한 집시는 유럽에서 집시(Romani), 신티(Sinti) 그리고 칼레아(Kalea)로 분류한다.

집시는 누구인가? 그들은 인도-유럽어족이다. 아마도 가장 최근의 인도-유럽어인일 것이다. 유럽에서 그들의 역사는 1,000여 년이다. 그들은 인종학상의 모습과 특별한 행동으로 구별이 된다. 집시의 인종학적 특징은 그들의 같은 혈통, 관례와 전통 제도, 내적인 법률과 기준, 가치 제도와 유목민적인 행동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의 행동은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고, 물질적·정신적 가치가 복합된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음악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주류에 의한 동화(同化) 압력으로 그들의 문화가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번 강제적인 문화 동화 시도에 의해 집시 문화가 파괴되어 왔고 나치는 그들을 육체적으로 박멸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의 문화는 오랫동안 독립적인 문화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역사적으로 집시들은 그들이 맞닥뜨리는 문화에 영향을 끼쳤지만 대개 인정받지 못한 채 지나갔고, 오직 그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때만 예외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들은 종종 역사가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았다. 그

지난 반세기동안 로마니의 2세대의 상실에 대하여, Davidova, Eva, “MEZIGENERAČNÍ ZMĚNA: KE ZTRÁTĚ DVOU GENERACÍ ROMŮ V UPLYNULÉM PŮLSTOLETÍ (v DŮSLEDKU POVÁLEČNÉ MIGRACE A ASIMILAČNÍCH TLAKŮ V 50.-80. LETECH 20. STOLETÍ)” in Jakoubek, Marek a Budilová Lenka, Cikánskéskupiny a jejich sociálníorganizace, Centrum pro studium demokracie a kultury, 2009, p.240.

러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의 문화가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⁹⁾

2.3. 집시 교육의 문제점

체코에서 소수 민족 교육 문제 중 집시의 교육 문제 해결은 매우 복잡하다. 집시 교육 문제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조절해 해결할 수 없다. 짧은 기간의 프로그램은 원하는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구어체 언어가 집시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집시들은 집시의 다양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문화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

체코 집시들은 주로 4개의 사투리를 사용한다. 집시들 중 75%는 체코어를 사용할 줄 안다. 집시 언어(Romaniny, romšтина)의 표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대개 집시들은 2~3개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안

9) 물론 집시들의 민속 음악, 전래 이야기와 춤이 러시아, 스코틀랜드, 스페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지의 민속 음악, 전래 이야기와 춤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집시들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심정들을 음악으로 분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순수하게 오락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반드시 그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에 반하여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가조스르(Gadjos: 로마니들이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시를 부르는 말) 즐겁게 해주고 보수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집시들은 의외로 바이올린, 기타 등의 악기다운 악기를 일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금도 농촌에서 방랑하는 집시들 중 일부는 악기 없이, 그러니까 반주도 없이 집시 본래의 언어(로마니)로 단선율의 노래를 부른다. 가사에는 의미 없는 음절이 많이 사용되고 악기 대신에 입, 손, 발을 사용하여 내는 각종 음을 반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도시에 사는 집시는 독자적인 언어를 상실하고 바이올린, 첼발룸, 클라리넷 등의 서양 악기를 쓰며 노래나 기악도 거의 가조스의 기호에 맞추어서 연주한다. 대개는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서 악사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헝가리의 집시 연주단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http://www.lightearth.net/228614>(검색일: 2012.6.10.)

다. 고등 교육을 받은 집시나 내적 통합에 도달한 집시들은 체코어를 선호한다. 체코어는 집시 국제 정치 토론, 학술 대회와 미디어에서 사용된다.

체코 집시의 2/3는 집시어를 구사한다. 2001년 통계에서 1만 2,967명이 체코어와 집시어를 모국어라고 선언했다. 이 숫자는 집시 민족이라고 주장한 숫자(1만 1,859명)보다 많다. 물론 이 통계에 응하지 않는 집시도 많다.

대개 사람들이 중부, 동부 유럽에서 집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음악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집시 저술의 수준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집시 문학은 아직 역사가 짧다. 이는 첫 집시 동맹이 결성된 1969~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집시 소수 집단은 체코 공화국의 국가 소수 집단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외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1993년 헌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국가의 소수 집단으로 인정받았다. 비록 집시 민족이 마지막 인구조사에서 1만 1,716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이 데이터가 체코 공화국에 사는 집시의 '진짜'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대체로 그들의 인구 숫자는 15만에서 20만 명 사이를 오간다. 그 숫자에서 2만 명은 블락스로마(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루마니아, 알바니아와 헝가리의 집시 방언을 쓰는 사람)인데 이들의 문화와 언어는 다른 체코에 사는 집시와는 상당히 다르다.

체코 집시의 95퍼센트 이상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슬로바키아에서 체코 공화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이민자들의 후손이다. 나치와 파시즘이 득세했던 기간에 집시에 대한 박해와 혐오감을 바탕으로 한 일상 차별의 경험은 집시들에게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집시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불평등하게 가난, 실업, 인종 간의 폭력, 차별, 문맹과

병마로 고통 받고 있다. 1997년, 집시 사회를 위한 각부 장관들의 위원회 ‘어페이어 29(Affair 29)’가 소수 집시 집단에 닥친 문제들을 다루는 자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특히 소수 민족을 주류 사회로 통합시켜 그 수를 점차 늘리는 것과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수 집시 집단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다.

2000년 6월, 체코 정부는 집시 집단을 위한 정책 “집시 통합을 위한 개념(Concept for Roma Integration)”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자금이 마련된 것이었으며, 2002년에 최신 것으로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미래를 위한 주요 우선순위는 단지 차별 금지 조치와 집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 취업, 사회, 건강 관리와 주택 공급에서도 긍정적인 행동안을 포함했다. 비록 2002년 취업을 위한 국가 계획과 노동 시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한 다수 집단의 장기 실업에 대한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집시들의 상황을 약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광범위하게 퍼진 차별은 지속되었다.

집시의 권익을 위한 매스컴의 편성 계획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체코 라디오에서 매주 방송되는 한 시간 가량의 라디오 방송과 문화부에서 자금을 댄 네 개의 집시 대상 정기 간행물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문제점이 많은 영역은 여전히 교육 제도이다. 집시들의 75%에서 85%는 ‘주류’ 학교 시스템에서 그들의 교육을 완수하지 못했다. 집시 학생들의 대다수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 학교에 보내진다. 이런 학교는 더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학습 진척도는 아주 느리다. 이러한 제도는 특수학교 학생들을 방치하는 절망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집시 어린이들의 교육을 다루는 일련의 제도들을 승인하였다. 집시 어린이들을 특수학교로 격리시키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

게 여기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체코 정부는 위에 언급된 집시들을 위한 정책들을 승인하였다. 집시들의 낮은 교육 수준과 몇몇 고용자들이 지역 노동 사무실에 공고한 일자리에 집시 지원자들을 받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로 집시를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실 등에 기인하여 집시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집시는 주택 공급에서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출입과 같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차별에 직면해 있다. 더 나아가 사회에서 집시에 대한 학대는 지속되고 있고, 관계 당국은 그런 범죄자들을 조사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체코 공화국에서 민족 간 불평등을 감시할 특별한 독립적 기구는 없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옴부즈맨 사무실은 민족 간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다. 몇몇 기구들은 집시와 다른 소수 민족 이슈들에 대해 정부 자문 기능을 이행한다. 몇몇 시민 사회 단체들은 집시의 권리를 대신하여 노력하고 있다.

3. 소수 민족 언어의 교육 상황

3.1. 집시어(로마니어) 교육

체코 공화국에서 집시들의 상황은 매우 체코사회에서 호의적이지 않다. 비록 1998년 이후 제11학년 중학생들에게 집시어를 교습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집시어를 공식 언어로 가르치는 학교는 없다.

언어 장벽(집시 아이들은 대부분 집시어만을 사용한다)과 다른 사회적 기준 때문에 많은 집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특별 교정 학교에 보낸다. 체코 공화국의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시 어린이를 위해 집시어로 가르치는 특별 학급을 조직한다. 유로모자이

크 보고서에 의하면 체코 공화국은 2000/2001학년도에 110개가 넘는 특별 집시어 교실을 운영하여 1,364명의 집시 아이들을 교육했다. 그리고 2002/2003학년도에는 116개의 교실에서 1,489명의 집시 학생들을 가르쳤다. 비록 집시어가 중·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정해진 곳이 있지만 체코 공화국 전체에서 집시어로만 가르치는 학교는 사실상 없다.

소수 민족 보호 협정서¹⁰⁾에 따른 체코 공화국의 제1차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집시 아이들의 언어는 집시어다. “그들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체코식 집시어 사투리를 사용한다.”¹¹⁾

그러나 2004년도 제2차 보고서에 의하면, “집시 어린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 중 하나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대부분 학교에도 집시 아이들이 출석하는데 그 집시 아이들은 체코어로 가르치는 교사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체코어로 가르치는 교사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 학교에서

10)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구성협약(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11) 필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자유화되고 나서 1990년 첫 여름에 프라하에 가서 거리에서 이상한 민족의 여인 네 명을 만났다. 그들은 나와는 체코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자기들 끼리는 라틴어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 나로서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라틴계 말처럼 된소리가 많았다. 그래서 물어보니 롬(Rom)말을 한다고 한다. 내가 로마말 하느냐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이탈리아계 떠돌이 민족인 줄 알았다. 그들은 꽤나 친절하였고 길을 물었더니 잘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가면 자기들 거주지에 한번 들려 달라고 했다. 나중에 체코 교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말하는 롬말은 로마-이탈리아어가 아니고 바로 집시어(로마니어)라고 하면서 은근히 관광객을 유혹하는 여인들이라고 한다. 나중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자주 만난 비슷한 민족이 바로 집시족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구걸도 하고 유혹도 하지만 아주 부유한 집시들은 자기들을 로마니(집시) 왕족이라 하며 친절하면서도 자랑하고 으스대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관광객들이 집시에게 지갑을 도난당하는 보도가 자주 나서 경계하기는 했지만, 그날 길에서 만난 집시 족에 대한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는 대부분 체코어-슬로바키아어를 사용하는데 집시어는 1학년 수준의 보조 언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속되는 자발적인 문화적·언어적 흡수 동화는 특히 어린 집시 세대들부터 고유한 집시 문화적 전통, 민속과 언어 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9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집시 어린이들은 ‘체코식 집시어’를 말하였는데, 200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이 ‘체코어-슬로바키아어식 집시어’를 말하였다고 한다. 이는 놀라운 현상이며 언어의 흡수·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시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자주 학업을 멈추어 버리는 집시 어린이들의 현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체코 정부는 소위 ‘말하는 집시 교육 보조교사’들을 집시 지역 사회에 채용한다. 이러한 특수 교사들은 집시 어린이들이 공부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와 집시 학부모들과의 소통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보고서에 따르면 집시 소수 민족을 위한 개별적인 학교 제도는 필요치 않다고 한다. 그러나 1998년도 라이코주 리박사재단(Doctor Rajko Djuri Foundation)에 의해서 집시 중·고등학교(Romská střední škola sociální)가 콜린(Kolín) 시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3.2. 독일어 교육

체코 공화국에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는 역사적으로 독일이다. 독일 인들은 체코 역사 내내 많은 수가 이민을 왔고 체코 땅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 왔다. 또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체코는 오랫동안 독일어 권인 오스트리아의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 문화적으로, 언어적

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1910년도 체코 영토 내에 독일인 숫자는 349만 2,362명이었다. 이 시대가 체코 역사상 가장 많은 독일어 사용 인구다. 그러나 1991년도에는 4만 8,556명, 2001년도에는 3만 9,106명으로 감소하였다.

현재 체코 공화국에서 소수 민족어로서 독일어 교육의 기회는 많지 않다. 독일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때만 해도 300만 명 이상이 오늘날 체코 서북부 지방인 수데텐 지역에서 살았으나 패전의 책임으로 체코 슬로바키아 공산 정권에 의해 대부분 추방당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 정권은 독일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 말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¹²⁾

1995년 이후 프라하에서는 체코어-독일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중·고등학교를 장려했다. 프라하와 중부 보헤미아 지방 독일인 협회에 의해서 최초의 토마스만고등학교(První gymnásium Thomase Manna)가 설립되었다. 독일어, 독일 역사, 문학을 이 학교에서 가르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의 일부분이 독일어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 학교는 독일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 학교는 1995년도에 114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의 모국어는 체코어이다. 이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 체코 정부와 독일의 지원을 받는다. 체코는 대부분 고등학교가 공립이라 학비가 없지만 이 학교는 학비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12) J. 네크바필과 J. V. 네우스투프니, “체코 공화국의 언어정책”, 《언어계획의 현재쟁점》, Jiri Nekvapil & J. V. Neustupný, “Language Management in the Czech Republic” in *CURRENT ISSUES IN LANGUAGE PLANNING*, Vol.4, No. 3 & 4, 2003, p. 183 참조

1997년 베르나르드볼자노초등학교(Bernard Bolzano Primary School)가 타보르(Tabor) 시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도 체코어-독일어 학교이다. 또 프라하에는 사립 독일어-체코어 이해를 위한 초등학교(Soukromá ZŠ německo-českého porozumění)가 있다. 이 학교는 프라하와 중부 보헤미아 지방 독일인 협회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독일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폴란드인, 세르비아인, 중국인, 러시아인, 베트남인, 우크라이나인 등으로 학생들 구성이 다양하다. 독일어는 1학년 과정부터 선택 과목이다. 독일 정부가 재정 지원은 물론이요, 교과서와 교사들을 지원한다. 또한 체코 교육부가 프라하와 리베레츠(Liberec) 시에 체코어-독일어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독일어 교육기관 설립도 한계가 있다. 손자들과 독일어를 말하던 대부분 늙은 세대는 저 세상으로 갔다. 현재는 독일어를 하는 학생들이 체코 전역에 소수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지역마다 독일어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체코 학교에서 독일어 과목을 선택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프라하 체코 국립 카렐대학교를 비롯하여 체코의 여러 대학에서도 독일어를 배울 수 있다.

3.3. 폴란드어 교육

2001년도 폴란드 국경 지방 체코 공화국에서 체코인들과 함께 사는 폴란드인들은 5만 1,968명으로 등록되었다. 체코 공화국에서 폴란드인들의 상황은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좀 나은 편이다. 사실 폴란드 소수 민족은 체코 공화국의 소수 민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소수 민족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체코와 폴란드 국경 지역, 즉 프리데크-미스테크(Frydek-Mistek)와 카르비나(Karvina)에서는 그 지방 인구의 8% 이상이 폴란드 소수 민

족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까지 폴란드어로 가르치는 교육 제도가 있다. 체스키 테신(Český těšín)에 소재한 폴란드 교육 센터는 교과서 출판과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출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센터는 체코 교육청소년체육부에서 설립하였다.

2004년도 소수 민족 보호 협약에 의하면 4,000여 명의 폴란드어 학생들이 등록하였다. 그중 유치원 700여 명, 초등학생 2,300명, 고등학생이 500여 명이다. 또 체코어-폴란드어 이중 언어를 배우는 고등학생들이 약 340여 명 있다. 이들 중 초등학교는 대부분 폴란드어로 수업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오스트라바대학교에서는 폴란드 소수 민족 교육 제도에 의해 고용된 교수들이 폴란드어를 가르친다. 또한 1990년도에 오스트라바대학교에는 체코 공화국의 폴란드민족연구과가 설립되었다.

3.4. 슬로바키아어 교육

체코 동쪽에는 슬로바키아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두 민족 간의 국경은 자주 변해 왔다. 두 영토는 처음으로 1918년부터 1939년까지 합쳐졌다가 다시 1945년부터 1992년까지 합쳐졌다. 이러한 역사적 국경 문제로 체코 공화국에는 약 19만 3,190여 명의 슬로바키아인들이 살고 있다.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 두 언어는 서슬라브 어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85~90% 정도가 언어적으로 유사하다. 이 두 언어는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분리되고 이웃 나라 언어로부터 받는 영향도 다르지만 체코어는 독일어의 영향을 받았고, 슬로바키아어는 헝가리어의 영향을 받았다. 1918년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이 한 국가를 형성해 온 이후(1993년까지) 이 두 언어는 대중매체와 인

구 이동 등으로 상호 접촉이 강화되어 왔다. 물론 어휘가 완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 대체로 어휘 면에서 유사성이 아주 높고, 이러한 유형의 단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부분 두 언어의 단어에서 음성적, 형태적 차이가 다소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언어 사이에는 문학 작품을 서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문학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의 일부였으므로 공용어는 라틴어와 헝가리어였으나, 프로테스탄트 예배식에서는 크랄리체 성경판 체코어를 계속 사용했다. 안톤 베르놀라크(Anton Bernolák)가 첫 슬로바키아어 법전 편찬을 시도했다. 그는 가톨릭 신부였고 서부 슬로바키아 사투리에 근거한 문법책을 발간했으며 여섯 권으로 된 그의 사전은 사후 출판되었다. 그러나 베르놀라크의 슬로바키아 문학어 사전은 널리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그다음으로 문학어 사전을 시도한 루도비트 쉬투르(L'udovít Štúr)의 중부 지방 슬로바키아어에 기반을 둔 1846년도 판은 즉각적인 호평을 받았다. 그 이후 형태론과 어휘론에 변화가 있었지만 현대 슬로바키아어는 쉬투르의 작품에 의존하고 있다.

쉬투르와 베르놀라크 이전에는 다수의 체코어 혼성어와 다양한 철자법이 관습에 따라 쓰이고 있고 지방 사투리가 슬로바키아어로 쓰였다. 최근에 이 사투리가 섞인 슬로바키아어 표준화 이전의 변형 형태들을 서부, 중부, 동부 슬로바키아 문화권이라 언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독립적인 문어로서 슬로바키아어 창안과 성립으로 오히려 체코어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고, 공통 체코슬로바키아어를 사용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후자는 제1 공화국(1918~1938)의 언어적 신화로 존재했다.

1993년 독립을 이룩한 신생 유럽의 작은 나라 슬로바키아도 이처럼

민족어를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언어만 살아 있으면 우선 그 민족의 장래 희망은 보인다. 민족어의 유지 발전이 19세기 낭만주의 이후 유럽의 한 경향이였다.

체코 공화국 내에서 슬로바키아인들이 가장 많은 소수 민족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만 슬로바키아어를 공식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기술직업 전문학교가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되기 전까지 슬로바키아어는 학교 교과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오직 몇 개의 학교만 슬로바키아어를 계속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브르노 소재 마사리크대학교와 프라하의 카렐대학교에서만 이 슬로바키아어를 가르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몇 개의 초·중등학교에서 슬로바키아어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자 대부분 그만두었다. 실제로 유로모자이크 리포트¹³⁾에 의하면 대부분 슬로바키아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슬로바키아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지배적이다. 사실 여러 번 슬로바키아 어린이들을 위해 슬로바키아어 학교를 개설하려고 했지만 슬로바키아인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많은 수의 슬로바키아인들이 프라하에 살고 있지만 슬로바키아어 학교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아마 슬로바키아어와 체코어의 상당한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즉, 슬로바키아어교육

13) 체코 공화국에서 슬로바키아인에 대한 유럽모자이크 리포트, Euromosaic report on Slovak in the Czech Republic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세계의 언어 정책: 체코 155](http://europa.eu.int-The Euromosaic study: German in the CzechRepublic(2005) 참조.</p></div><div data-bbox=)

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레 슬로바키아 어린이들은 체코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한 모국어인 슬로바키아어를 가정에서 잘 구사하기 때문이다.

3.5. 기타 소수 민족어

체코 공화국에는 알바니아인, 미국인, 아르메니아인, 불가리아인, 중국인, 크로아티아인, 헝가리인, 유대인, 루마니아인, 러시아인, 루테니아인, 우크라이나인, 세르비아인, 베트남인 등이 살고 있다. 물론 다른 극소수 민족 그룹도 존재한다.

다른 소수 민족 언어 학교는 그 수가 아주 적다. 프라하에는 페트르 베론학교(Petr Beron School)라는 불가리아어 학교가 있다. 이곳은 불가리아 대사관과 관련이 있고, 불가리아 교육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에도 다양한 체코어 교과목이 있다. 체코 내 몇몇 대학의 슬라브학과에서 불가리아어를 배울 수도 있다. 크로아티아어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으나 크로아티아어 학교는 없다.

수많은 그리스인들의 본국 귀환으로 그리스어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2000/2001년도를 보면 몇몇 도시의 학교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쳤다. 당시 학생 수는 190여 명이었다.

1세기 넘는 기간 동안 대학 수준의 교육 기관에서 헝가리어를 가르쳐왔다. 프라하 카렐대학교에서는 헝가리 어문학을 공부할 수 있다.¹⁴⁾ 또한 체코 땅에 사는 헝가리인협회(Svaz Madaru žijících v českých zemích)는 헝가리인 가족의 아이들에게 헝가리어를 가르친다.

14) 필자가 2000~2001년도 카렐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기숙사 옆방에 사는 헝가리어 교수도 카렐대학교에서 헝가리어를 가르쳤다. 이처럼 체코 대학에서 헝가리어를 배울 수 있다.

체코 공화국에는 아직도 1만 8,746명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다. 그 이유로 여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친다. 1948년부터 1989년까지 체코는 공산주의 체제였던 당시 소련의 위성국이어서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쳤으나, 1989년 체코 자유화 이후에는 러시아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가르치고 러시아어는 선택적으로 가르친다.

체코 공화국에는 루테니아어와 우크라이나어 교육 기관은 없다. 현재 리디나초등학교(Ridna Škola)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¹⁵⁾ 물론 체코 대학에서는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를 배울 수 있다.

4. 결론

체코 공화국 인구 약 일천 오만 명 중에서 오직 9.9%만이 소수 민족으로 등록하였다. 이것은 모라비아인과 실레지아인 39만 2,524명이 포함된 숫자다. 여기에는 소수 민족어로 폴란드어, 독일어, 집시(로마니아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아랍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도 있다. 체코 공화국에서 소수 민족 중 집시의 교육 문제가 가장 복잡하다. 집시들은 집시의 다양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특히 집시 민족들을

15)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체코에 가까워서 체코에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수 있다.

위한 독립된 교육 제도와 집시어의 통합 교육은 절실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많은 집시 어린이들이 언어 장벽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 집시 어린이들이 특수학교에 보내지고 있다. 이는 집시를 위해서는 정상적이고 주류 교육 제도에 편입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인 문제이다.

체코 공화국에서 폴란드어만이 유일하게 고유한 교육 제도로 가르치고 있는 소수 민족어이다. 그 주된 이유는 폴란드인들이 체코-폴란드 국경 지역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고, 다른 민족들은 체코 공화국 전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인은 현재 체코 땅에 4만 1,328명이나 되지만 체코 전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독일어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 반면에 폴란드인들은 5만 738명 대부분이 몇몇 곳에 집중해 살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 용이하다. 다른 소수 민족들도 최소한의 숫자가 집중해 살아야 그 소수 민족어 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다.

체코에서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슬로바키아인들의 학교가 없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슬로바키아어 학교를 세우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몇 번 시도하였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이는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의 유사성 때문에 슬로바키아 부모들이 특별히 슬로바키아어를 아이들에게 따로 가르칠 필요성을 당장 느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